

가격 폭락에 쌓여가는 재고...우울한 '쌀의 날'

농협 광주·전남 지역본부, 쌀 소비 촉진 홍보 캠페인 대형마트들도 햅쌀 판촉전·1+1 행사·할인판매 나서 15일 기준 80kg 17만88원 지난해 비해 23.6% 폭락

벼농사를 위해 여든여덟(八十八) 번의 정성을 들이는 농부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한 '쌀의 날' (8월18일)을 맞아 곳곳에서 다양한 기념행사가 열렸다. 하지만 지난해 풍년으로 인한 과잉 생산으로 쌀값은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져, 당장 이달 말 조생종 벼 등 수확을 앞둔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이날 '8회 쌀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나주 본원을 찾아 임직원과 소비자를 대상으로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2015년 제정한 '쌀의 날'은 올해 8번째를 맞았다. 농협 전남본부는 해마다 쌀의 날을 기념하고 소비자에게 쌀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박서홍 전남지역본부장과 김홍상 농촌경제연구원장이 등이 참여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우리 쌀로 만든 가래떡과 전남 쌀 대표 브랜드 '풍광수'를 나눠줬다. 또 각종 행사에 쓰이는 화환을 쌀로 만들어보자는 캠페인도 펼쳤다.

박서홍 본부장은 "쌀의 날을 맞아 소비를 늘려 쌀을 생산하는 농업인의 근심을 줄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고품질 전남 쌀을 소비하며 가족의 건강을 지키는 날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농협 광주지역본부도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지난 16일 광주시청에서 벌였다. 농협 광주본부는 광주시와 '광주 쌀 소비 촉진'을 위한 상생 협력 업무

협약'을 맺고 쌀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쌀값 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날 행사장에서 농협 광주본부는 소외계층에 전달하기 위한 쌀(10kg) 300포를 광주시에 냈다. 쌀 구매 고객에게는 농협상호금융 후원으로 마련한 사은품 쌀(1kg)을 증정하기도 했다.

쌀의 날을 맞아 유통가에서도 다양한 행사가 마련됐다. 대형마트들은 올해 처음 수확한 햅쌀 판촉전에 들어갔다.

홈플러스는 고흥 등에서 나온 햅쌀 100t으로 '처음 햅쌀'을 만들어 오는 24일까지 할인 판매(3kg 8990원)한다. 이 기간 감진 햇보리 쌀(2.5kg)은 한 포대를 사면 하나 더 주는 '1+'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도 올해 처음 수확한 순수 국산 품종 '빠르미'를 모든 점포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이 품종은 다른 품종보다 50일가량 빨리 수확할 수 있고, 한 해 두 번 수확(이기작 농법)하는 것이 특징이다. 롯데마트는 이날 말까지 엘포인트 회원을 대상으로 할인 판매한다.

한편 지난해 수확한 쌀이 아직도 창고에 쌓일 정도로 재고 문제가 심각한 탓에 이달 쌀값은 4년 5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통계청 '산지 쌀값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15일 기준 정곡 80kg 한 가마니 가격은 17만88원으로, 전월(17만7660원)보다 4.3%(-7572원) 하락했다. 1년 전(22만2520원)보다는 무려 23.6%(-5만2432원) 떨어진 금액이다. 이달 15일 기준 쌀값



'쌀의 날'을 기념해 18일 나주시 빗기람동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열린 소비 촉진 행사에서 박서홍(왼쪽) 농협 전남본부장과 김홍상(왼쪽 두 번째) 연구원장이 임직원들에게 쌀을 나눠주고 있다.

은 지난 2018년 3월(16만9264원) 이후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낮다.

지난달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이 지난 쌀 재고는 10만2000t으로, 이는 전년(3만5000t)보다 191.4%(6만7000t) 많다. 전년과 비교한 쌀 재고

증가율은 전국 평균 80.6%(23만7000t→42만8000t)로, 전남 증가율은 전국 8개도(道) 가운데 가장 높다.

전남지역 농협들의 쌀(정곡) 판매량은 전년보다 증가했지만 쌀값 급락 탓에 매출은 크게 떨어졌다.

지난달 말 기준 판매량은 16만3000t으로, 전년 같은 기간(15만9000t)보다 4000t 증가했다. 하지만 매출은 같은 기간 4250억원에서 3701억원으로, 12.9%(-549억원) 감소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전남 농업인 900명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무안서 농민 자립·협동 결의

전남 선도 농업인 900여 명이 무안에 모여 농민의 자립·협동·과학 가치를 올렸다.

농협 전남지역본부는 18일 무안군 무안종합스포츠파크에서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가 열렸다고 이날 밝혔다.

사단법인 한국새농민 전남도회(회장 강계석) 주최로 열린 이날 대회는 새농민회원 상호 간 정보교류 및 화합의 장이 됐다.

이 대회는 해마다 전남 시·군을 순회하며 열고 있다.

전남 새농민회 회원 900여 명과 김안석 한국새농

민중앙회 회장,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산 무안군수, 김경현 무안군의회 의장, 박서홍 농협중앙회 전남지역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한국새농민중앙회는 농협중앙회가 육성하는 조직으로 전국 17개 시도회 및 153개 시군회 약 1만 명의 회원으로 구성됐다.

매달 농협중앙회가 시상하는 '이달의 새농민상' 수상자 부부가 회원 자격을 얻는다.

강계석 회장은 대회사에서 "코로나19 장기화와 쌀값 하락 등 갈수록 어려워지는 농업 환경이지만, 도내 선도 농업인인 새농민 회원들을 중심으로 전남 농업이 다시 부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국새농민 전남도회 주최로 18일 무안에서 열린 '전남 새농민회 한마음 전진대회' 참가자들이 기념 촬영하고 있다.

롯데백화점 광주점 추석 '프리미엄 선물' 40% 올려

한우 세트·범성포 굴비 등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올해 추석 고급 선물 수요가 늘 것으로 예상하며 '프리미엄 선물' 물량을 지난 설 명절보다 40% 이상 확대했다고 18일 밝혔다.

광주점 추석 선물세트 본 판매는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진행된다.

롯데백화점은 자주 보지 못하는 진지를 위한 '프리미엄 선물' 수요가 증가 추세라고 밝혔다.

대표적인 고급 선물로 꼽히는 '한우 꾸러미'의 경우 올 설 명절 광주점 매출이 지난해 명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롯데백화점이 올 추석 마련한 '프리미엄 선물'로는 200만원을 호가하는 1++등급 한우 세트와 170

만원 상당 지정농장 1++등급 스테이크 세트가 있다.

수산물 가운데서는 마리당 400g 내외 참조기만 엄선한 '명품 영광 범성포 굴비' 꾸러미가 고급 선물로 꼽힌다. 이외 함평 전지한우, 흑산도 홍어, 장흥 정남진 백하고 등도 진열대를 채운다.

롯데백화점 광주점은 540만원 상당 와인(스크리밍이글 까베르네소비옹)을 3병 한정 상품으로 내놓았다.

한복양 광주점 식품팀장은 "이번 추석에는 고객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상품을 마음을 담아 직접 선물하기 위해 매장에 방문하는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가족·지인들과 더욱 풍요로운 한가위를 보내길 바란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이승철·다비치 무대...광주은행 'KJ 카드 콘서트' 열립니다

10월15일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K포인트로 티켓 응모

광주은행이 코로나19 여파로 중단했던 'KJ 카드 콘서트'를 3년 만에 연다.

광주은행은 '2022 KJ 카드 콘서트'를 오는 10월15일 광주시 광산구 광주여대 유니버시아드 체육관에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7년 시작한 KJ 카드 콘서트는 코로나19로 2020년과 지난해 중단됐다.

출연진은 이승철과 다비치, 홍진영 등이다.

광주은행 KJ카드 전 회원(개인·기업카드)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모바일 웹, 스마트폰 앱을 통해 오는 9월14일까지 K포인트로만 콘서트 티켓을 응모할 수 있다.

응모 매수에는 제한이 없으며 오는 9월21일 개별 문자 통지를 통해 당첨자를 발표한다.

K포인트가 없거나 부족하면 개인 신용카드 회원만 최대 2매까지 응모할 수 있다.

부족 포인트는 11월 결제일에 청구된다.

김재중 광주은행 카드사업부장은 "고객의 관심과 성원에 보답하고 지역 공영문화 활성화에 힘을 보태고자 콘서트를 준비했다"며 "KJ 카드 콘서트가 지역 대표 공영 및 행사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코스피 이틀째 하락...환율 10.4원 급등

장중 2500선 아래로 원·달러 환율 1320원대 마감

코스피가 18일 2,500선을 위협하며 이틀째 하락했다. 이날 코스피는 전 거래일보다 8.42포인트(0.33%) 내린 2508.05에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보다 17.17포인트(0.68%) 낮은 2499.30으로 개장해 장중 한때 2488.09까지 떨어졌다가 낙폭을 줄여 2,500선을 회복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기관이 4453억원을 순매도했다. 반면 외국인과 개인은 각각 3109억원, 1296억원을 순매수했다. 장 초반 매도 우위를 보인 외국인이 매수 우위로 전환하면서 지수는 낙폭을 크게 만회했다.

전날 공개된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금리 인상 의지가 재확인되면서 긴축 우려가 다시 부각됐다. FOMC 의사록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이 잡힐 때까지 경제 성장세를 꺾을 정도로 기준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는 비둘기적(통화완화 선호) 언급도 나와 연준의 기조를 두고 시장의 해석이 엇갈렸다. 같은 날 발표

된 미국의 7월 소매판매는 전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오거나 시장 전망치인 0.1%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다.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10.4원 급등한 1320.7원에 마감했다. 1320원대 종가는 지난달 15일(1326.1원) 이후 한 달여 만이다. 외국인 매수세가 몰린 대장주 삼성전자가 1.82% 오르며 증시 하단을 지지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2710억원어치 순매수했다. 반면 시가총액 10위권에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0.46%)를 제외한 8개 종목이 하락 마감했다.

미국 인플레이션 추측법에 따른 전기차 세제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여파로 현대차(-2.11%)와 기아(-2.54%)가 연일 큰 폭으로 내렸다.

또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간편 송금을 금지하는 방안이 담겼다는 보도에 카카오페이가 6.56% 급락하고 네이버(-3.10%)와 카카오(-1.12%)도 동반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기계(0.95%), 음식료품(0.95%), 비금속광물(0.77%), 전기·전자(0.70%) 등이 강세를 보였고 운송장비(-1.57%), 의약품(-1.47%), 의료정밀(-1.44%), 운수장고(-1.35%) 등은 약세였다.

코스닥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1.36포인트(0.16%) 떨어진 826.06으로 마감됐다. 지수는 전날보다 4.71포인트(0.57%) 내린 822.71로 출발해 장 초반 1% 이상 하락했다가 역시 낙폭을 축소했다.

코스닥시장에서는 기관과 외국인이 각각 512억원, 67억원을 순매도했다. 개인은 852억원을 순매수했다.

코스닥 시장 상위권에서는 셀트리온헬스케어(-2.84%), 에코프로비엠(-1.26%), 카카오게임즈(-1.72%), 셀트리온제약(-3.26%) 등의 낙폭이 큰 편이었다. HLB(4.69%), 에코프로(2.80%), 리노공업(2.71%), JYP Ent.(2.87%) 등은 오름세를 보였다.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 하루 거래대금은 각각 7조183억원, 6조9'619억원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508.05 (-8.42)
↓ 코스닥	826.06 (-1.36)
↑ 금리 (국고채 3년)	3.125 (+0.038)
↑ 환율 (USD)	1320.70 (+10.40)

사학연금, 나주 본부서 '2022 을지연습' 준비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은 나주 본부에서 치러지는 '2022 을지연습'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정부 차원 비상대비 업무를 수행하는 훈련 '을지연습'은 오는 22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사학연금은 국가 비상사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이날 초 임직원 대상 사전 교육을

벌였다. 19일에는 을지연습 사전회의를 열어 훈련 중점 목표와 사태별 주요 조치사항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킹 등 사이버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 훈련도 펼쳐진다. 사이버 위기 상황을 가정해 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해킹 메일 대응, 홈페이지 모의 해킹 훈련 등을 한다.

사학연금은 을지연습 기간 안보의식을 높이기 위한 홍보 영상을 본부 건물 매체와 소셜미디어(SNS) 등을 활용해 송출하고 있다.

주명현 이사장은 "이번 을지연습은 국가 안보를 튼튼하게 하고, 각종 비상사태 발생 때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훈련이 될 것"이라며 "공단은 적극적인 준비와 참여를 통해 비상사 위기대응 능력을 키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